

광산구 학교공간 혁신사업, 새 교육 모델되나

빈 교실·공터·복도 등 재활용
'문화예술플랫폼 영동사업'
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반영
광주 일선학교도 적용될 듯

광주 광산구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문화예술플랫폼 영동 사업'(이하 영동 사업)이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간 혁신사업'으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면서다. 사업이 진행되면 학생들은 빈 교실, 공터, 복도 같은 학교 내 유휴공간을 공방이나 문화예술플랫폼으로 직접 바꾸게 된다.

전국중의 경우 지난해 12월 26일 'FM살롱' 개장식을 가졌다. 학생들은 같은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빈 교실을 직접 설계하고 시공해 문화예술플랫폼을 만들었다. 명칭은 재미(Fun)와 메시지(Message)를 담은 공간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FM살롱'으로 불렸다.

학생들은 공사장에서 얻어 온 목재 펠릿을 다듬고 색을 입혀 타자를 만들고 칠판이 있던 자리에 벽화를 그려 넣었다. 지역 사회도 거들었다. 철재 프레임용 용접해 거치대를 만들어준 주민도 있었고 공공미술팀 '좋은 세상 만들기' 정수 대표의 'FM살롱' 만들기에 참여,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학생들은 FM살롱에서 영화 시사회, 학



광산구가 학교 공간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내 유휴공간을 학생들이 문화예술플랫폼으로 바꾸는 것으로 교육효과가 높다. 광산구 예산지원으로 8개교가 공간혁신에 나섰다. 지난해 말 광산중 플랫폼 '신나고' 개소식 장면.

생활동 전시, 토론하며 꿈을 키우고 있다.

전국중을 비롯, 지난해 광산중, 산정중이 이같은 문화예술 플랫폼을 갖췄다.

학생들의 변화에 주목한 다른 학교들의 요청이 이어지면서 광산구는 올해 공모를 거쳐 5개 초·중학교를 추가로 선정했다. 지난해 학교당 1000만원인 지원금도 올해 1500만원으로 늘렸다.

직접 공간을 만든 학생들의 교육 효과는 어떨까. 전국중 이유미 교사는 "스스로 나서면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깨달았다"며 "앞으로 나와 세상이 변화시키기 위해 지금의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깊게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영동 사업'은 학생과 교사, 마을 주민들이 함께 추진한다. 학교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학생들이 기획하고, 교사는 이들의 참여를 '정규 수업'으로 진행해 뒷받침한다. 마을 주민들은 조인과 재능을 지원해 학생들의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학

습한다. 또 마을, 주민과의 교류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문화예술플랫폼 영동을 비롯한 광산구 교육사업은 광주시교육청에 전파됐다. 김태은 광산구 교육정책지원관은 지난 8월 시교육청 간부회의에 초대받아 사례도 발표했다. 광산구는 교육 분야에서 일군 혁신 성과를 광주시민과 공유하고자 오는 12월 14일부터 사흘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교육축제'를 연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가 학교 공간에 주목하는 이유

공간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사람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람을 규정한다. 광산구가 '학교는 삶의 공간'이라는 데 주목, 영동 사업을 기획한 이유다.

학교 공간은 모든 시민이 만나 소통하고 연대하는 최적의 장소다. 마을 어디서나 접근이 쉽고, 여러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다. 공동체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가 적절한 곳이 학교다.

재미있게 놀면서 떠오른 상상을 기획하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문화감수성과 창의성 그리고 자치와 민주주의를 학생들이 체득하고, 지역과의 교류로 마을 공동체의 싹을 틔우는 것이 영동 사업이다.

광산구는 '영동 사업' 시행 첫 해인 지난해 학교당 1000만 원, 올해 1500만 원을 지원했다. 예산만 놓고 보면 보통의 '실내 인테리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사업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그 비결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연대'다. 대부분 이런 사업은 '수업 육성'이 큰 교사가 자원하지만, 결국 교사 혼자만의 고독하고 괴로운 작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영동 사업'은 학생과 교사 그리고 마을 주민이 첫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하고 있다. 광산구는 이 사업에 참여한 교사들의 커뮤니티 구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인 등을 제공했다. 학교는 '영동 사업'을 정규 수업으로 편성해 관심과 참여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두 번째로는 '팔거리 정책'이다. 광산구는 '영동 사업'을 철저하게 지역 공동체에 맡겼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와 자치에 사업의 성패가 달렸기 때문에 이것을 해치는 일체의 개입을 하지 않은 것.



학교 공간 혁신 사업으로 참여와 자치 기반을 강화하는 광산구 정책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11월 1일 광산구가 산정중·광산중·전국중과 맺은 문화예술플랫폼 영동 만들기 협약식.

좋은 행위를 일으키는 공간은 삶을 좋게 이끈다. 학생과 주민이 시민으로 만나 소통하고 문화 향유 기반을 만드는 일은 결국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정의롭게 가꾸는 자

양본이다. 광산구는 이 같은 일이 일상에서 더 빈번하게 이뤄지고 깊게 뿌리내리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교육정책 설계 교사 출신 김태은 교육정책지원관

"삶 위한 학교 만들고 주민 소통 강화 성적표보다 중요한 길 보여주고 싶어"



김태은 교육정책지원관은 광산구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있다. 교사 출신인 그의 이력은 현장의 요구에 맞는 사업을 창출해 광산구 교육정책의 파급력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김태은 광산구 교육정책지원관은 야호센터, 영동 사업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구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설계한 장본인이다. 그의 이력은 특이하다. 그는 이른바 '일류대'에 아이들을 잘 진학시키는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다. 또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활동하는, 전국에서 드문 사례다.

김 지원관은 2010년 수완중학교로 왔다. 본인이 자원했다. 그는 "삶에 화의가 들었다"고 지원 배경을 밝혔다. 김 지원관은 그곳에서부터 또 다른 길을 개척했다. 제자들에게 성적표만큼 중요한 길을 보여주고 싶어했다. 일본군 위안부, 5·18항쟁, 공정무역, 노동,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아이들과 토론하고 학습했다.

아이들과 부대끼다보니 그의 눈에 학교라는 공간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삶을 위한 학교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학생 친화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굳혔다. 교사 연수, 학생 체험활동, 수학여행 콘텐트, 학년 교육과정 설계가 이 기준에서 나왔다. 광주 선운중학교에 광방 '교물'과 복합문화공간 '2037'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도록 도왔다. 두 시설은 주민에게 개방해 마을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참여와 자치'에 기반한 학생들의 성장에 주목한 광산구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김 지원관은 "학교나 교실 같은 '필드'가 없는 광산구에서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처음엔 고사했다. 하지만 "이제 광산이라는 더 넓은 '필드'가 있지 않나"는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설득으로 2016년 3월 광산구 교육정책지원관 업무를 시작했다.

민 구청장의 말대로 그는 학교 안팎에서 영동 사업, 청소년 문화예술 공간 야호센터, 남녀노소 모든 시민들의 소통공간 이야기꽃도서관으로 '필드'를 넓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 출신인 그와 행정 공무원들이 힘을 맞춰가며 성과를 낸다. 그는 "나는 행정 공무원 조직문화와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들은 시민교육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힌다. 김 지원관은 "공간과 시민성을 화두로 삼아 광산구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원관은 "지역정부 교육정책이 학습 보조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참여와 자치에 기여하고, 학교를 마을과 사회로 확장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한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슬라브 옥상 스틸 방수 단열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 패널

아파트, 학교, 주택,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옥상 시공

- ▶ 방수, 단열 이중효과!
- ▶ 냉·난방비 절감효과!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합리적 가격, 단 한번 시공!

※ 무료 출장 견적내드립니다.



목포권, 순천·여수권 등 대리점 모집(영업 및 시공)

TWIN 트윈스틸 (모던건설)

H 010-9229-3530
☎ 062-5 3 1-3530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 45(신안동 478-18)